

시 정 질 문 서

【백종훈 의원】

1. IPTV 공부방 설치

IPTV 공부방은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등 주요 교육 콘텐츠와 다큐멘터리 등을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활용 하는 학습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IPTV 공부방은 사회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IPTV 공부방을 활용한 교육복지의 실현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이어 충청남도, 경기도 등에서 관계기관등과 협약식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 15곳에 IPTV 공부방을 시범설치 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에서 LCD TV와 교육콘텐츠와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업은 자원봉사자, 아동복지교사 등이 학습교사를 맞게 됩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IPTV 공부방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계획에 따른 우리 부천시의 유치 현황과 진행 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각급학교 원어민 교사 관련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각급 학교의 영어 원어민 교사 확보를 시 집행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에서도 수요가 많은 원어민교사 배치를 앞당기기 위해 나머지 70개교는 대응투자사업(6:4)으로 내년도 25개교 등 2010년까지 100%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2010년까지 100%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계획(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을 추진 중에 있어 경기도 교육청계획과 연계하여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의 원어민 교사 확보 현황에 대해

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원어민 교사의 자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업 태도가 극도로 무성의하거나 학기 중에 맘대로 그만두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력을 위조한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태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도 각급학교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채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각급 학교에서 활동중인 원어민 교사에 대한 채용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는지 채용시 학력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채용, 관리시스템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 관심 사항

지난 6월 15일 범박동 흥타운 3단지 주민 800여명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 해당토지매입 및 공원설치에 관한 탄원서를 우리 부천시에 접수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지역 주민들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악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범박동에 이렇다할 공원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약 5,500세대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범박동 지역에 지금까지 공원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와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에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대학 유치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집행부 역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며 해당 지역에 대학이 이전 된다면 도시 브랜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공원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동양공전 유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해당대학과의 유치협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4.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부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전기나 가스·수돗물 사용을 줄이면 그에 비례해 현금·상품권 등으로 보

상받는 '탄소포인트(carbon point)'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88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부산의 해운대구 등 16개 구를 포함, 88곳에서 시작되며 점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가스·수돗물의 사용량을 줄인데 대한 보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며, 해당 시·군·구 사정에 따라 현금·상품권·교통카드·주차권·쓰레기봉투 제공이나 아파트관리비 할인 등의 형태로 제공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환경오염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 계산에 따르면 에어컨 사용시간을 하루 1시간씩 줄이면 한 달에 51.8kWh를 절약해 6682원을 벌 수 있고, 에어컨 실내 설정 온도를 섭씨 24도에서 26도로 올리면 한 달에 2890원(22.4kWh)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TV는 하루에 한 시간 덜 보면 한 달에 529원(4.1kWh)을, 냉장고는 용량의 60%만 채우면 꼭 채웠을 때보다 929원(7.2kWh)을 벌 수 있다. 냉장고 정리만 잘해도 한 해 1만1000원 정도의 가뭇돈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 역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구축하고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해 주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우리 부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